

화학공장, 발암물질 51% 배출

환경부, 플라스틱·정유 순 ... 2011년 총배출량 5만2289톤

2011년 유독물, 발암물질, 중금속 등 화학물질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사고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배출량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2년 1-12월 발암물질 등 415종의 화학물질 중 하나 이상을 취급한 34개 분야 3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1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배출량이 5만2289톤으로 2010년에 비해 4.5% 증가했다고 4월18일 발표했다.

자일렌(Xylene) 33.4%, 톨루엔(Toluene) 13.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1%,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 7.0% 순으로 많이 배출됐으며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총배출량의 84.2%를 차지했다.

운송장비 33.8%, 고무·플라스틱 13.6%, 화합물·화학제품 8.9% 등 5개 분야에서 총배출량의 69.9%를 배출했으며, 경남 18.9%, 울산 17.4%, 경기 16.2%, 충북 11.2%, 전남 7.4% 등 5개 지역에서 총배출량의 71.1%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 중 벤젠(Benze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염화비닐(Vinyl Chloride), 카드뮴(Cadmium), 비소(Arsenic) 등 1급 발암물질(IARC 분류기준)의 배출량은 2011년 404톤으로 2010년 409톤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분야는 화학이 51%로 수위를 차지했고, 고무·플라스틱 17.2%, 석유정제 15.4% 순으로 조사됐다.

2011년 화학물질 취급량은 1억5050만톤으로 2010년 1억4300만톤에 비해 5.2% 증가했으나 취급량 대비 배출량 비율은 2010년 0.0350%에서 2011년 0.0347%로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조사는 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으로의 배출량과 폐기물·폐수에 포함돼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배출량 등을 조사해 사업장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2014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량을 조사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관리·저감 정책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18>